

[로스쿨 합격기]

또 다른 시작

은 송 이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I. 시작하며

처음 합격기를 부탁받았을 때 몇 번은 거절했고 또 쓰기로 결정한 뒤에도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필력도 좋지 않은데다가, 무엇보다 내세울 것이 없는 그저 평범한 과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로스쿨 입시를 시작할 무렵 부딪혔던 막연함과 그 불안했던 시기를 생각하며, 현재 로스쿨 입시를 진행중이거나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부족한 입시과정을 되돌아볼까 합니다.

II. 지원동기

저는 다른 훌륭한 분들처럼 이 땅의 정의 구현, 부패한 법조계의 쇄신, 혹은 사법제도의 재정립 등 근사한 목적을 가지고 로스쿨에 지원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학부 때 법학을 공부했고, 시험용 법전의 한자도 제대로 못 읽는 철모르던 시절 로스쿨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법대생으로서 당연히 사법시험을 보리라 생각했던 제게 로스쿨의 등장은 그다지 반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이 가까워 오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미 1기, 2기로 로스쿨에 가 계신 선배님들이나 동기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진 막연한 반감 혹은 오해가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게 되며 로스쿨 입시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III. 과 정

1. 학점

저는 학점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학점이 리트, 영어를 뒤집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학부에 계신 분들 중 난 리트한방으로 뒤집어야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혹시라도 학점관리에 소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통 토익을 기준으로 900에서 950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리트는 정말 변수가 많은 시험이라 본고사 당일 고득점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점은 4년(혹은 그 이상)의 학부생활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지표입니다. 특히나 저같은 경우 특별히 경력이나 수상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학점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녹여낼때 그 근거로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과목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할 때에, 취득한 관련학점이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 영어

영어는 그저 빨리 고득점을 취득해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취득해 놓으면 다른 정량·정성요소를 올리는데 시간을 더욱 투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편한 마음으로 다른 평가요소에 집중할 수 있어 능률면에서도 좋습니다. 물론 말이 쉽지만 저 역시 수능이후로 토익을 제대로 본적도 없고 영어 공부를 해본일

이 없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혼자서 하려니 재미도 없고 자꾸 미루는 것 같아 스터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학교 게시판에서 영어스터디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8월 리트전까지 고득점은 받지 못했지만 꾸준히 시험을 치러 점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리트시험 직후 1달여간의 시간이 있어서 다시 아예 로스쿨을 위한 점수 취득이 목적인 멤버로 단기 한 달 스터디를 구성하여 열심히 영어공부를 했습니다. 그 때 든 생각은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정말 많이 올릴 수 있었을텐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막 속도가 붙고 점수 상승폭도 꽤 컸으나 한 달의 시간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리트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상당히 큽니다. 반드시 그전에 영어점수를 취득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3. 리트와 논술

저는 로스쿨 입시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로스쿨에 합격한 분들로부터 모의고사의 무용성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에도 아직 문제가 유행화 되지도 않았고 경향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원 모의고사를 믿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입시가 단 2회 치러졌을 때까지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리트도 스터디를 구성해서 공부했는데, 스터디 멤버들도 모두 모의고사 등에는 회의적인 입장이라 기존 PSAT, MEET, DEET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스터디 초기에는 문제 전부를 풀지는 않았고 반 썩 풀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고, 함께 채점을 한 뒤 공통적으로 틀리는 문제는 다시 풀어보고, 내가 틀리고 남이 맞은 문제는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언어이해의 경우는 종종 지문과 문제 중 무엇을 먼저 읽어야 하는지 혹은 밑줄을 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저에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에 관해 많은 말이 있지만, 이걸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면 자연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문제를 빠르게 훑고 지문과 문제를 거의 동시에 보았습니다. 한 단락을 읽고 다음 단락을 넘어가면 그 전단락 내용이 가물가물 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내용을 찾는 대신 내용을 먼저 보면서 이런 내용의 문제가 있었다 싶으면 바로 문제로 넘어가 체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본 시험에서 언어이해 영역 성적이 추리논증 영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추리논증 영역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덜 나왔기 때문에 추리논증 공

부 방법론에 관하여는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준비 당시에도 제가 추리논증 성적이 잘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니 제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그 시간 안에 커버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니다. 한 문제를 오래 잡고 있으면 다른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푸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본고사 때에 모든 문제를 다 풀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여 평탄만 치고 언어이해영역에 승부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를 딱 보면 대충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지, 풀 수는 있겠는데 시간을 많이 요하는지 감이 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치게 걸리겠다 싶은 문제는 그냥 스킵하고,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었습니다. 풀다가도 뭔가 꼬였다 싶으면 문제를 다시 보기보다는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니다. 꼬였다 생각이 들 때 다시보게 되면 두 배의 시간이 들고, 그렇게 한 문제를 풀었다 해도 그 당시엔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본고사 때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시간안배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니다. 그리고 채점할 때 틀린 문제나 넘어간 문제를 해설지를 보거나 맞은 분의 설명을 들었고, 다시 풀어도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는 지워버렸고 풀 수 있었을 문제는 별표하고 시험 전에 다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원이나 모의고사에 부정적인 입장이기도 했고, 논술을 단기간에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논술은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니다. 리트 스터디 멤버들과 두어번 써보고 서로 돌려보는 정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4. 자기소개서와 면접

저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특히 처음 쓰기 시작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써 본적도 없거니와 쓸 말도 없고, 웬지 나를 포장해야 한다는 느낌이 거북스러웠습니니다. 대강의 틀을 잡기 위해 로스쿨에 재학중인 선배들을 죄다 붙잡고 물어봤습니니다. 공통된 의견은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뜬구름 잡는 말처럼 보일지 몰라도 제 생각에도 이것이 자기소개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읽는 심사위원들은 내 자소서 이외에도 몇 백개의 자소서를 봅니다. 어차피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많고, 제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전 읽기 편한 문체로 한 편의 짧은 동화같은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니다. 일단 틀을 잡으면 그 뒤로는 일사천리입니니다. 조금씩 살을 붙여나가 초안을 완성하고, 스터디 멤버에게 첨삭을 받았습니니다. 굳이 자기소개서 전문인에게 첨삭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접도 스터디를 통해 준비했습니다. 다음까페 '서로연'에서 스터디모집 글을 냈고, 면접스터디이니만큼 사람이 좀 많은게 좋을 것 같아 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면접문제는 기존의 로스쿨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였고 당시 유행하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쟁점들도 몇 가지 다루었습니다. 1인이 면접을 받고 4인이 면접관역할을 하며 온갖 질문과 고쳐야 할 점들도 서로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말이 원래 빠른 편이고 손 짓을 많이 하는데 역시나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영상 촬영도 병행했는데, 찍어놓은 동영상을 보니 고쳐야 할 점이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영상을 찍어서 직접 보는 것은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2번정도 진행했고, 각 스터디 구성원들의 성격이나 사상이 점점 드러나고 모의 면접진행후 그 문제에 관해 토의할 때 자연스럽게 깊은 생각을 말하게 되어 저로서는 많이 본받고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제 면접 당일 얼마나 기다려야할지 몰라 먹을 것을 싸들고 갔는데, 첫 번째로 불려나갔습니다. 무방비상태로 불려나가 아무생각도 나지 않고 그저 멍했습니다. 면접장 밖에서 지문을 10분 보고 들어가서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문을 받자마자 갑자기 덜덜 떨리기 시작했는데, 면접장에 들어가자 처음이라 그런지 교수님들이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끌어주셔서 금세 평정심을 되찾고 평소처럼 신나게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단 자신감을 갖고 씩씩하게 말하는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아무리 많이해도 주어진 시간은 10분이고, 내가 준비한 문제가 나오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자신감과 자신만의 논리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종국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스터디를 꾸준히 함으로써 채워나갈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III. 마치며

로스쿨 합격에 이렇다 할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막상 동기들이나 다른 학교 합격자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준비 과정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방식을 보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입시의 끝은 또다른 시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하시면 원하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